

폭설에 속수무책 대중교통... 올 겨울 대책은

지난해 사고 속출... 결행·지연 구간 감감이에 도민 불편도, 버스정보 실시간 제공·제설장비·방한텐트 등 준비

폭설에 속수무책이었던 제주 대중교통이 올 겨울은 무사히 넘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과 2월 연이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 대중교통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결행·지연 구간이 버스 도착 정보단말기(BIT)와 '제주버스정보' 어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도민들이 추위에 떨며 장시간 버스를

기다린 것이다.

사고는 주로 체인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에 나섰다 일어났고, 심지어 서귀포시에 도입된 저상 전기버스 59대의 경우는 차체가 낮아 체인은 고사하고 스노우타이어도 장착하지 못해 폭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하지만 이를 알리는 BIT는 시스템 문제로 결행·지연 구간에 대해 '잠시 후 도착'이라는 문구를 내보내

도민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올 겨울에는 차질없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BIT와 제주버스정보 어플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결행·지연 구간을 알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제설작업의 최우선 순위도 대중교통 운행 구간으로 설정했다. BIT는 폭설 당시 800대였지만 현재는 504대가 늘어난 1204대가 설치됐다.

문제가 됐던 저상버스의 경우는 전용 스노우타이어를 확보해 장착(서귀포시 65대)하거나, 여의치 않

은 경우(제주시 23대)에는 타이어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장비를 따로 구비한 상황이다. 아울러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요 정류장에는 '방한텐트'가 설치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체제 개편 초기에는 동절기 대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BIT와 버스정보 어플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고 예방과 승객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19일 한라대학교에서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선정 8주년 기념 '동북아 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2019 세계환경수도 포럼'이 열렸다. 고대로그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된다 내년 4월부터 일괄 전환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국회는 19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은 신분에 관한 4개법(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률, 소방기본법)과 재정에 관한 2개법()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단일화되며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번 통과된 법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유지된다.

소방사무는 기존처럼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올 6월 말 현재 5만4188명으로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한다. 이중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총 989명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세계환경수도 무기한 표류... "5~10년 더"

어제 환경수도 포럼서 주장 명칭 '환경허브'로 변경 전망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2020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추진했으나 인증이 무기한 표류하게 됐다. 제주 세계환경수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5~10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중수 전 환경부 차관은 19일(사)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이사장 김부일) 주관으로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선정 8주년 기념 '동북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2회 2019 세계환경수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차관은 이날 '제주 세계환경수도 추진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당초 2020년까지 계획했던 하느본

화구 복원 추진, 송배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2030년까지 모든 운행차량 전기자동차 전환 사업,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활성화, UN 환경평화대학원 설립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추진목표의 모호성,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부족, 국제기구와 중앙정부 대한 지나친 의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제주세계환경수도인지, 아니면 동북아환경수도인지 추진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추진하고 세계환경수도는 5~10년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민 환경수도팀장은 이날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으로 환경수도 인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이후 인증을 위해 지난 7년동안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과 IUCN과의 장기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비영리 환경단체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계환경수도 인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내년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세계환경허브도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며 "이 도시협의체가 구성되면 앞으로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세계환경수도 인증 시기는 장담할 수 없고 명칭도 세계환경수도가 아닌 제주세계환경허브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대로그기자 bigroad@ihalla.com

멸종위기 '물고사리' 자생지 첫 발견

산림원 '제주, 아열대식물과 한반도 연결고리 역할 주목'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아열대성 양치식물 물고사리(water fern, Ceratopteris thalictroides)의 제주도 지역 자생지가 최초로 발견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 지역에서 물고사리 종의 실체를 확인하고 자생지 2곳 및 6개 집단의 군락 정보를 수집했다고 19일 밝혔다.

물고사리는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반도 남부지역(부산, 순천, 광양, 구례 등)에서 드물게 관찰됐으나 제주도 지역에서 자생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고사리는 순록의 화려한 빨을 닮은 아름다운 잎을 가진 소형 고사리로, 물속이나 물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식물이다. 종자에 해당하는 포자를 물이나 철새의 이동을 통해 확산시킨다.

제주도 지역은 물고사리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됐으나, 지금껏 자생지가 발견되지 않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도 내 물고사리의 자생지가 확인되면서 종 분포에 관



물고사리.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한 식물 지리학 분야의 오랜 의문 역시 해소될 것으로 산림과학원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아열대성 식물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는 초기 정착지 및 중간 정착지로서 식물 분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제주도가 한반도로 확산되는 물고사리의 유전자 다양성을 위한 보급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종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전기차 충전 자투리시간 이용한 투어 선빈다

서귀포 원도심·대정 등서 카본프리투어 코스 개발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여행객들이 차량을 충전하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도보로 주변 올레길과 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는 '서귀포 카본프리투어'가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전기차 여행객들이 완속 충전에 걸리는 1시간동안 충전소 주변 미술관, 해변, 공원, 마을길 등을 도는 카본프리투어를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월부터 코스 개발에 들어가 전기차충전소를 출도착 지점으로 삼아 현재 서귀포 원도심과 대정, 하례리, 성산읍 지역에서 5개 코스를 개발했다. 원도심의 경우 '제주 문화예술 산책'이라는 테마로 서귀포예술의전당·기담미술관·삼매봉도서관·칠십리시공원~예술의전당을 도는 코스다. 대정읍은 '제주용기를

만나다'는 테마로 세인트 존스베리 충전소~구억리 검은굴~구억리 노랑굴~제주용기체력관, 성산에서는 '제주 자연을 걷다'라는 테마로 성산오조충전소~오조포구~오조리 마을길~식산봉~오조충전소를 도는 코스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이들 5개 코스를 점검중인데, 주변환경을 고려한 테마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공영관광지·요식업 등과의 연계 여부, 코스내 위해요소나 사유지 침범 여부 등을 확인중이다.

시는 연말까지 카본프리투어 코스를 확정짓고, 내년에는 시범투어와 관광안내도 삽입 등 여행객들에게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고희철 관광진흥과장은 "카본프리투어 코스 추진은 전기차 완속 충전하는 1시간동안 도보로 충전소 주변 마을자원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모시는 말씀

하늘은 더욱 파랗게 짙어가고 황금빛 햇살과 바람결을 타고 느껴지는 낙엽 내음이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본 회에서는 임시부담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도 「**고 3학생을 위한 페스티벌 및 참스승상 시상식**」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체험을 통하여 감성과 인성을 함양하며, 학생들이 직접 펼치는 문화 공연과 각 학교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19회 참스승상 수상자 명단

김철준(제주동중), 국윤화(영지학교), 홍성호(대기고) 김영수(영주고), 김영준(남녕고)

- 다 음 -

■ 일 시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 장 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 문 의
Tel. 064)756-0150

주최 **참 사 랑 실 천 학 부 모 회**
(사)선 플 문 동 본 부 제주 지 부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제주지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pi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혜 향	4년생
성전은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병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외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9년생,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